

여성 기능인력 너무 적다

또 하나의
교육개혁

직업훈련에도 할당제 실시해야

단기간 직업훈련으로 단순기능공 수준에 그쳐

각종 직업훈련도 여성에 대한 할당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노동자회(회장 이영순)가 최근 발표한 94연구보고서 <여성직업훈련 현황 및 확대방안>이라는 자료집은 직업훈련원에서 20%를 여성으로 할당하는 의무할당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다양한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 기능인력이 적은 원인이 직업교

자는 2백27만8천6백25명으로 2급 자격증 소지자(85.7%)가 대부분이며 기능사 1급은 4%에 불과하다. 이중 여성인력 국가기술자격 취득 상황은 13.2%를 차지하고 있는데 2급 기능자격 소지자가 12.8%를 차지하

데다 기능의 가장 낮은 단계인 단순기능공 양성이 증가되고 있어 질적으로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함께 공공직업훈련 대부분이 제조업, 생산직 기능위주로 되어 있는데다 기능인력=남성이라는 사회적 인식,

여성 스스로의 직업생활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 미흡 등이 작용하고 있어 여성 기능인력 배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내 직업훈련에서도 여성 참여 현황은 극히 낮은 수준.



공과대학 여학생비율 전문대 11% 4년제대학 4.9%에 불과 공업고등학교 여학생은 4.7%뿐

육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 자료집에 따르면 현재 공과대학에서의 여학생 비율은 전문대가 11.1%, 4년제대학이 4.95%를 차지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중 53%를 차지하고 있는 여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이 상업고등학교로 진학(81.1%)하고 있고 공업고등학교 진학 여학생은 4.7%만을 점하고 있는 실정.

여성 기능인력 수준도 상대적으로나 직종에서도 뚜렷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즉 91년말 국가기술자격 취득

고 있어 고급 기능인력이 전무한 실정.

여성직업훈련 현황도 매우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78년부터 91년 현재까지 양성된 여성 비율은 약 20.2%, 이중 공공직업훈련은 약 4.8%, 사내 직업훈련은 26.6%, 인정직업훈련은 38.7%로 나타나 인정직업훈련이 여성 비율은 높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인정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이·미용, 도배, 컴퓨터 관련 기능 등 서비스직 분야를 양성하고 있는

78년부터 91년까지 사내 직업훈련에서 양성된 인원은 84만 9백 66명으로 전체 54.2%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훈련원 중 가장 많은 기능인력 양성을 한 셈. 그러나 여성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이 갈수록 사양산업화함으로써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형식적으로 머릿수를 채우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 고급인력 양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은 조기퇴직 등으로 투자효과가 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3개월 내지 6개월의 단기훈련 등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자료집은 직업훈련 확대를 위한 교육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양성평등 교육을 지향함과 동시에 공과, 과학고, 공업전문대, 공과대에 여학생수를 늘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학생 진출 확대를 위해 정원할당제, 장학금, 취업알선에서의 여성우대 등의 방법이 제안됐다.

또 각종 직업훈련에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여성 직업훈련생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직업훈련원에 여성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기숙사 등 여성 편의시설 확보 등이 우선 조건으로 제시됐다.

<김명순 기자>